

수위의 금기에 관한 고찰

南珉亞* · 韓明淑

중부대학교 강사* · 상명대학교 가정과 교수

An Inquiry into the Taboo of the Burial Shroud

Min-Ye Nam*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Joong Bu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윤달과 관련된 금기
I. 서 론	2. 수의 제작과 관련된 금기
II. 수위의 풍속과 금기의 개념	3. 옷감과 관련된 금기
1. 수의풍속	4. 기타
2. 금기의 개념 및 종류	IV. 결 론
III. 수위에 관한 금기와 상징성	참고문헌

Abstract

Folk belief, which originated with the rise of human existence is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mode of living that reflects sociocultural conditions. Adherents of folk belief accept a certain thing to be true and real without scientific authority and absolute certainty. Taboo can be seen as a kind of folk belief.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boos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the shroud and to the shrouding customs. I will also try to find out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in this.

Through this task, I hope to contribute to the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spiritual life, and the views on afterlife of the Korean people.

In Korea, it is considered to be propitious to prepare the shroud on the intercalary month of the leap year, as it allows one to enjoy longevity healthy and sound. Moreover, as this belief gives credence and repose while preparing for the "final departure," this custom is relatively well observed.

From the taboo concerning leap months, we infer that death as viewed as a commencement of a new life, which reveals a positive view on afterlife. This can be seen as a return to the origin of anti-universal space in this "bonus" month of anti-universal time.

Taboo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hroud is related to the belief that it allows the deceased to go to the next world without any hesitation or disturbances. This symbolizes the immortality of the human soul: i.e. that the human spirit does not end in this world but continues on to the next.

Taboos concerning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shroud as well as various other taboos are related to the belief that preparation for the shroud should be done in sincerity and secrecy with a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the deceased. This can be perceived as an implication to sanctity for the dead.

I. 서론

한 민족이 지니는 고유한 문화는 그 민족만의 독특한 생활을 통해 오랜 세월 거쳐 내려오는 동안 창조되며, 이러한 전통 생활 의식인 의례를 통해서 조상들의 의식과 인생관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생활 규범인 禮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사례서(四禮書)의 내용이 되는 <관·혼·상·제>중 상례를 중요하게 여겼다¹⁾. 상례는 민족의 생사관(生死觀)과 조령관(組靈觀)을 나타내며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관념적 사고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 민족은 내세 사상을 믿어 왔기 때문에 사자(死者)를 극진하게 후장(厚葬)하여 존경, 추앙을 표시하였다.

내세는 현세의 계속으로서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므로 저 세상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여기는 이러한 영혼불멸과 내세영생의 생사관²⁾은 영혼관, 신화, 전설 그리고 제의(祭衣) 등에서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죽음에 있어 시신을 예복으로 성장시켜 새로운 내세로의 출발에 최대의 예의와 정성을 표현한다. 이 때의 예복이 수의로서 죽음이라는 슬픔과 동시에 내세에 관한 경건한 의미를 가진다. 수의는 내세에 갔을 때 입고 있을 의복이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의 준비 과정과 수의에 갖든 의미는 한국인의 내세 관념을 잘 나타내 준다.

그러므로 수의 만들 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많으며, 그것은 죽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수의의 제작이나 재질, 염습 등의 과정에서 수의와 관련된 금기 사항을 살펴보고 그것에 갖든 의미와 상징성을 알아 보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 정신생활, 내세관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의속신 중에서 수의와 관련된 금기 사항으로 제한하였으며 논문, 서적, 민속보고서 등의 문헌과 본인이 수의제작자, 염습 경험자, 연세가 많은 분 등을 면담하여 얻은 자료를 상정성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의미 분석하였다.

II. 수의의 풍속과 금기의 개념

1. 수의의 풍속

수의는 사람이 타계하여 염습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을 말한다.

수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속으로 부모의 환갑이 가까워지면 가정형편에 따라 수의를 지어 두는 것이 상례이나, 여자가 시집갈 때 반드시 마면해 가야한다는 배도포를 제사 때 제복(祭服)으로 착용하다가 수의로 사용하고 결혼 예식 때 착용하던 신부 내삼이 수의에서 원삼으로 사용되기도하여 수의를 생전에 장만해 놓는 경우도 있었다³⁾.

수의는 생전에 입던 옷보다 크고 넉넉하게 만들어 계급과 신분에 따라 혹은 빈부의 차이에 따

1) 박명숙, 수의문화 및 수의복식의 소고,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작품 전시회 자료집, 1998, p11.

2)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의식주편), 1995, p.215.

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 p.125.

라 그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생전에 각자의 신분
에 따라 그에 맞게 입던 예복(禮服)과 같이 만들
며⁴⁾, 무색에 동정은 달지 않으나 가품에 따라 동
정을 달기도 하고 달지 않기도 하는데 동정을 달
경우 종이심은 배집하지 않는다고도 하며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을 골
라 입혔다고도 한다⁵⁾.

수의를 갖추려면 남자는 280자 여자는 300자⁶⁾,
혹은 남자는 390자 여자는 330자⁷⁾ 가량 들며, 수
의를 만들 때는 팔자(八字) 좋고 장수한 노인들
을 모서다가 바느질을 하였으며 차수나 폭수에
있어서도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한다⁸⁾.

우리 나라에서는 수의를 사전(死前)에 자손이
미리 준비해 두면 부모가 장수한다는 말이 전해
져 오며, 자손이 수의를 준비하면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수의 소장자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즐겁게 죽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죽음의 세계는 이승과 단절된 두렵고
꺼리는 세계가 아니라 죽음을 이승에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이승과 이어지는 세계로 인식하고 저
승을 이승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⁹⁾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생의 시작으로 보는 긍정
적 내세관¹⁰⁾ 때문이기도 하다.

수의 준비는 옛날에는 대소가의 친족들이 날을
받아 모여서 집안에서 마련하기도 하고¹¹⁾ 회갑
(回甲)이 지난 후 날을 정해서 하는데 윤달이 든
해나 날을 받아서 하기도 하며, 주로 윤년 윤월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윤달은 태양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 시간과 달
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 시간의 차이에서 생기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오늘날은 태
양력, 월력, 일력의 오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19

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 준다¹²⁾.

태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 늘려(400년에 97
일) 2월을 29로 하고 태음력에서는 5년에 두 번
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한달을 더하여 윤월을
만들어 이달을 윤달 또는 군달이라고 한다¹³⁾.

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운이 들기 시작하
는 초기, 기운이 왕성한 중기, 기운이 쇠퇴하는
말기의 변화를 보고 태양과 달의 운항 시차에서
어느 한 계절이 달력상 먼저 오게 되면 그 달을
한달 더 만들어 윤달로 하였다¹⁴⁾. 말하자면 덩으
로 얻는 덩달이다. 이런 윤달은 중기가 없는 무중
월로서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고 신명의 감시 밖
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해도 달이 없다고 여겼으
며¹⁵⁾, '공달'이라하여 재액(災厄)이 없는 달로 되
어 있어 민간에서는 결혼, 건축, 이사 등 무슨 일
을 해도 지장이나 부작용이 없는 달이라하여 모
든일을 꺼리지 않고 하였으며 요즈음에도 윤달이
오면 수의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윤달에는 흉한 윤달과 길한 윤달로 구분하기도
하여 길한 윤달에는 이사나 결혼등 경사스러운
일을 하였고, 흉한 윤달에는 집안의 흉사를 없애
는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길흉을 구분하지 않고
윤달에는 이장, 묘의 개축 등 장례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수의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수의를 윤달에 준비하면 달이 없고 무
병장수한다고 하여 죽음의 준비과정에서 믿음과
안정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에 관한 풍속은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지켜져 오고 있는 풍속 중
의 하나이다.

2. 금기의 개념 및 종류

속신은 인간생활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기초적

4) 김득중·유송옥·황혜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88, p.375.

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上揭書, p.62.

6)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국민속대관, p.247.

7)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180.

8) 김득중·유송옥·황혜성, 上揭書, p.376.

9)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p.62.

10)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p.63.

1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上揭書, p.99.

12) 송호수, 한국인의 수의문화, 제1회 수의 문화 세미나 및 수의 작품 전시회 자료집, 1998, p.6.

13)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p.31.

14) 박명숙, 前揭書, p.20.

15) 송호수, 前揭書, p.6.

16) 김성배, 上揭書, p.31.

이며 광범위한 생활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세태(世態)와 사회문화를 반영한다¹⁷⁾.

속신은 대체로 “...하면 ...하다, ...해야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를 하면 생활전반에 걸쳐 일어나서는 안될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⁸⁾.

속신이란 말은 과학적인 근거나 절대적 확실성이 없지만 어떤 일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수용하거나 믿는 것을 의미하며¹⁹⁾, 금기(禁忌), 주술(呪術), 점복(占卜), 예조(豫兆) 등 학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하기도 한다²⁰⁾.

금기는 이러한 속신의 한 유형으로서 불행의 결과를 예방·처리하는 지식과 기술에 속한다.

금기는 ‘타부(Taboo)’로 표현되며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 등이 신성시 되거나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거나,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 실천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꺼리는 불문율의 금제(禁制)이다²¹⁾.

금기는 ‘삼가한다’, ‘근신한다’, ‘피한다’는 말로 신이 있는 곳이나 신성한 시간과 장소, 위험한 상태에서 금기가 많아 부정울 금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조심을 뜻한다고 본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신적 존재의 노여움이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종교성을 기초로 발생하여 문화현상의 일부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개인 및 사회에 영향을 준다.

금기는 인간의 모든 생활 주변과 사회구조 속에 번지고 뿌리 박혀 하나하나의 속신, 속설로 정립된다. 오늘날 전승 유포되고 있는 금기의 속신 속설들이 언제부터 발전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문헌을 살펴보면 <後漢書>에 ‘견어금기 니어소수(牽於禁忌泥於小數)’라 하였고, 또 중국 남사(南史)에 ‘양원제특다금기(梁元帝特多禁忌)……’, <삼국유사> 고조선 조(古朝鮮條)의 예산

기(艾蒜忌)에 ‘태호득이식지삼칠일(態虎得而食之忌三七日)……’, 삼국유사 사금갑 조(射琴匣條)에 ‘언비수이금기백사야(言悲愁而禁忌百事也)……’ 등의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금기에 대한 언행이나 표시 등은 이득한 옛날 유사 이래 비롯된 것으로 본다²²⁾.

금기의 종류는 종교적인 금기, 사회적 측면의 금기, 개인적인 금기로 나눌 수 있으며 종교와 관련되어 지켜지는 관습으로서의 금기를 종교적 금기,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 집단의 관습으로 고착화된 금기를 사회적 측면의 금기,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기를 개인적인 금기로 볼 수 있다²³⁾.

금기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금줄·팔죽이나 소금 뿌리는 일·부적이나 나뭇가지를 다는 등의 행동이나 표시로서 하는 것과 경계나 주의물 주고 금기와 기의(忌意: 꺼림)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말로써 하는 것 즉 금기어(禁忌語)가 있다²⁴⁾.

본 연구에서의 금기는 수의에 관련된 금기로서 말로서 하는 금기어(禁忌語)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금기의 종류로 보면 종교적 측면에서 내세는 현세와의 분리 단절이 아닌 새로운 영생의 시각으로 보는 내세관에서 출발된 금기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집단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관습으로서 금기로 볼 수 있다.

Ⅲ. 수의에 관한 금기와 상징성

1. 윤달과 관련된 금기

- 윤달 든 해 수의를 장만하면 좋다.
- 수의는 윤년 윤월에 만들면 좋다.
- 윤달에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무병 장수한다.
- 윤달에 수의를 지어두면 오래 산다.

17) 박덕미·황춘섭, 전통 의생활 문화에 나타난 속신 고찰(Ⅰ), 복식문화연구 제6권 2호, 1998, p.230.

18) 김진구, 한국 의속신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3호, 1998, p.384.

19) 上揭書, p.384.

20) 박덕미·황춘섭, 前揭書, p.231.

21) 김성배, 前揭書, p.81.

22) 김성배, 上揭書, p.205.

23) 박덕미·황춘섭, 上揭書, p.233.

24) 김성배, 上揭書, p.206.

· 죽을 때 입을 옷을 윤달에 미리 만들어 두면 저승사자가 안 잡아간다.

이들 속신들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출처나 전하는 사람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인 것으로 보며 같은 뜻을 의미한다고 본다.

윤달이란 원래 예정에 없었던 공달로서 가시는 분의 평안을 축복하는 뜻에서 한가롭게 정성을 다해서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 것²⁵⁾으로 보며,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수의 풍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긍정적 내세관에서 출발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음으로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준비를 하게 되고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어 건강하게 사시다가 갈 수 있다는 믿음²⁶⁾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윤년이나 윤월은 비우주적 시간과 비우주적 공간에 대한 의미를 가지며, 수의를 윤년 윤월에 준비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돌아가신다'고 표현하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비우주적(非宇宙的) 시간에 비우주적 공간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²⁷⁾ 인간은 어디선가 우주내에서 현세로 왔다가 다시 우주의 어딘가로 돌아가는 인간의 근원회귀와 신성의 상징으로 본다.

2. 수의 제작과 관련된 금기

- 아침에 만들기 시작하여 해지기 전에 끝마친다.
- 하루에 수의를 만들지 않으면 저승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루 해지기 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두우면 저승길을 찾기 어렵고 저승가는 길이 환히 밝아야 저승문을 빨리 찾아서 저승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영혼불멸과 내세의 상징으로 본다.

수의 만들 때는 품삯을 받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였으며 이 날은 춤추고 노래부르

고 활밥을 지어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였는데 활밥을 지어먹는 것은 천당에 갈 때 대우의식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²⁸⁾.

요사이는 집안이 모여서 3~5일에 함께 몰아한다는²⁹⁾ 곳도 있으며 전문으로 대량생산하는 곳도 있어 이 금기는 절대시되어 잘 지켜지고 있는 다른 금기에 비해 비교적 융통성을 가지고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수의를 바느질하는 실은 도중에 잊지 않는다.
- 수의는 바느질 뒤를 매듭짓지 않는다.
- 수의의 바느질은 끝맺음을 하지 않는다.
- 수의를 바느질하던 실은 옥매지 않는다.
- 수의를 바느질할 때는 바늘땀을 되돌아 뜨지 않는다.
- 수의를 만들 때 실매듭을 짓지 않는다.
- 수의를 뒷바느질 하게 되면 그 고가 맺혀서 환생치 못한다.
- 바느질하다 실이 짧으면 빼어 버리고 다시 길게 끼워서 바느질한다.
- 수의의 바느질 실은 길게 늘여 뜨려 준다.
- 수의의 단은 접어서 공그르지 않고 그대로 숨겨 둔다.
- 감을 한 번 마르면 다시 마르지 않는다.

수의를 만들 때 매듭을 지으면 매듭지어 준 사람이 먼저 죽는다 하기도 하고 고가 맺혀 환생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³⁰⁾ 가끔 되 살아날 때 회생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나³¹⁾ 수의를 바느질할 때 뒤를 끝맺음하거나 매듭을 지으면 그 매듭을 풀기 위해 저승으로 가는 길이 늦어 진다는 것으로 여겨 빨리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것이며, 바느질 도중 실이 짧아서 잊거나 바느질 땀을 되돌아 뜨다든지 하는 것도 이승의 끈을 풀고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쉽게 저승으로 가서 내세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원하는 것이다.

25)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p.331.

26) 박명숙, 前揭書, p.20.

27) 백영자, 전통의례복 구성에 관한 연구, 방승대학교 논문집 제26집, 1998, p.432.

28) 박명숙, 前揭書, p.19.

2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前揭書, 1986, p.22.

3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上揭書, p.76.

31) 유관순, 前揭書, p.124.

사자가 내세로 갈 때 통과되는 여러 과정을 거침없이 통과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밝고 순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중단되거나 되돌아 가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기로서 인간의 영혼은 현세에 끝나지 않고 내세로 이어진다는 영혼 불멸과 내세 영생의 상징이 된다³²⁾.

· 수의에는 동정을 달지 않는다.

평상복은 여러 번 입어 때가 타면 동정을 갈아 달고 세탁을 해서 입지만 수의는 저승길에 한 번만 입고 가는 옷이란 의미로 동정을 달지 않는다³³⁾. 동정 모양은 만들어도 종이를 받치지 않는다.

· 버선 지을 때 결과 안 모두 명주로 하지 않는다.

명주는 부드럽고 매끄럽기 때문에 버선이 벗겨지면 저승길 가는데 미끄러져 가기 힘들거나 방해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며, 또 미끄러워서 혼백이 제사에 다닐 수 없기 때문³⁴⁾이라고도 한다.

· 악수, 습신은 점으로 만든다.

저승 갈 때 가시발길이나 불길들을 헤치고 나갈 때 손이나 발이 다치거나 태이지 않도록 보존한다³⁵⁾는 의미에서이다.

· 치마를 겹치마로 하면 안 된다.

치마를 겹으로 하면 죽어서 다시 한 번 시집을 간다는 속설³⁶⁾ 때문인 것으로 본다.

· 아들이 혼인을 하지 않았으면 도포를 짓지 않는다.

자식이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입을 수의를 준비하는 것이 예와 도리에 어긋난다³⁷⁾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저승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편하고 갈 갈 수 있도록 하고 내세와 현세의 구분을 두지 않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생전에 수의를 짓는 것에 대한 예를 다

하기 위한 의미로서 내세영생을 상징하고 있다.

3. 옷감과 관련된 금기

· 모시로는 수의를 만들지 않는다.

· 수의를 모시로 하면 자손들에게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

· 명주로 수의를 만들지 않는다.

옛날에는 수의감에 모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모시로 수의를 만들면 자손의 머리가 세고 눈이 하얗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며, 명주로 수의를 만들었을 때 땅에서 썩지 않고 뼈에 감긴다고도 하고³⁸⁾ 시신이 썩지 않는다³⁹⁾고 하여 생긴 것으로 보며 최근에는 모시로는 수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명주는 사용되고 있다⁴⁰⁾.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것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근원회귀에 대한 상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자투리 감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 자투리 감이 들어가면 해롭다.

저승 갈 때 입고 가는 옷을 만드는 옷감은 저승 옷의 의미로서 이승에 자투리라도 두고 가면 이승에 대한 미련이 생겨 가지러 오거나 하여 저승가는 길을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도 보며, 자투리 감이 돌아다니면 단정하지 못하여 자손에게 해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⁴¹⁾이며 또 정성을 들여서 수의를 장만하도록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 수의를 만들 때 남은 천조각이 불에 들어가면 재난이 생긴다.

수의를 만들 때는 남은 천조각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자투리 천은 모아서 베개 속에 넣는다.

32) 서울특별시, 前掲書, 서울특별시, p.215.

33) 박계순,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85번지 거주, 본인 면담

34) 유관순, 前掲書, p.124.

35) 광명숙, 前掲書, p.15.

36) 유관순, 前掲書, p.124.

37) 유관순, 前掲書, p.124.

38) 유관순, 上掲書, p.122.

39)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前掲書, 1986, p.21.

40) 유정행, 대한 불교 연화회 실장, 본인면담

41) 유관순, 前掲書, p.124.

- 삼배 도포 자투리 끊어 치마를 지어 입으면 사후에도 같이 간다.

이는 영혼은 영혼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이승 인연이 저승까지 함께 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남편 도포 자투리 끊어 치마를 지어 입어 남편 영혼을 따르기를 염원한다는 의미로 본다⁴²⁾. 수의는 혼인 때 지어서 가지고 간 베도포를 사용한다⁴³⁾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사자에게 정성을 들이고 예를 다하게 함으로서 내세에 대한 경건함을 갖게 하는 의미로서 영혼 불멸과 윤회, 내세 사상을 상징하고 있다.

4. 기타

- 수의 만들 때 수의를 넘어 다니지 않는다.
- 수의에 물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 수의 만들던 실패, 가위, 자 등은 빌려쓰지 않는다.
- 수의 만들 때 실을 이빨로 끊으면 치아가 오래 가지 못한다.
- 수의 만들 때 바늘이 들어가면 해롭다.
- 수의 보관 시 수의에 쫄이 쓸면 좋지 않다.
- 수의 보관시 쥐가 쫄을 치면 안된다.
- 가족 중 입산부나 부정한 사람은 수의를 보면 안된다.
- 상주 될 사람은 수의를 만들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수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상을 맞았을 때가 저울이면 방에서 수의를 짓지만 보통 수의를 지을 때는 마당이나 마루에서 짓는다.
- 염습 시 시신위로 수의나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
- 수의 입힐 때 가위나 칼을 시신위로 주고 받지 않는다.
- 수의 입힐 때 웃고름은 매지 않는다
- 염습 시 수의를 입힐 때 시신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염습 시 수의를 입힐 때 잡아 당기면 한 번에 다 풀리도록 모든 매듭은 옥매지 않는다.

염습시 입종할 때 입었던 옷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가위나 손톱 발톱을 자를 때 사용하는 칼 같은 물건을 시신의 위로 주고 받으면 시신이 일어난다는 속설 때문⁴⁴⁾이기도 하나, 시신 위에 물건을 놓칠 우려도 있고 시신에 해를 끼치거나 무례한 행동이 되므로 시신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⁴⁵⁾ 보아 삼가는 것으로 본다.

수의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으로서 사자를 수의로 성장을 시켜 내세로의 새로운 삶으로 출발시킨다는 사자에 대한 최대의 배려로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장만할 때도 신성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예(禮)를 갖추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 난 것으로 신성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와 같이 수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기를 살펴본 결과 그 의미와 상징성은 다음과 같다.

윤회에 수의를 장만하는 것과 관련된 금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회귀이다. 덤으로 든 윤회는 모든 신명의 감시 밖으로서 우주 외의 인간 근원으로 돌아가는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인간은 어느 곳에선가 왔다가 어딘가로 가는 것이므로 비우주적 시간에 비우주적 공간으로 가는 것이라 윤회 윤회에 만들며 이는 인간 근원의 회귀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다.

수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금기에서는 영혼 불멸과 내세영생, 윤회사상 등이 나타난다.

저승길을 되돌아 오거나 시간이 지체되게 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은 인간의 생이 이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승으로 연결되어 현세와 내세가 분리되어 단절되는 것이 아닌 영혼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아 죽은 자가 내세에 편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영혼불멸과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보는 긍정적인 내세관인 윤회와 내세영생의 상징을 의미한다.

42) 송호수, 개천대 학장, 본인 면담

43)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前掲書, p125

44) 김성백, 前掲書, p229

45) 신규호, 충남 천안시 거주, 본인면담

옷감이나 기타 수의와 관련된 여러 금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모든 준비를 청결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성시에 대한 상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 민속박물관, 한국 복식 2천년, 신유문화사, 1996.
- 김득중, 유송옥, 황해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88.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 김진구, 한국 의속신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3호, 11-20, 1998.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저, 한국민속대관 1,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 곽명숙, 수의문화 및 수의 복식의 소고,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 작품 전시회 자료집, 1998.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7책, 1986.
- 박덕미, 황춘섭, 한국 전통 의생활 문화에 나타난 속신 고찰(I), 복식문화연구 제6권 2호, 77-91, 1998.
- 백영자, 전통의례복 구성에 관한 연구, 방송대학교 논문집 제26집, 1998.
- 서울 특별시, 서울민속 대관, (의식주편), 1995.
- 석주선, 우리나라 옷, 광문출판사, 1981.
- 송호수, 한국인의 수의문화, 제1회 수의문화 세미나 및 수의 작품 전시회 자료집, 1998.
- 순남숙,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유관순, 우리나라 수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교문사, 1997.
- 이민수 역, 관혼상제, 을유문화사, 1975.
- 이종항, 우리민족의 상례와 제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 논문집 제9집, 1975.
-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 한중수 편저, 사례편람 관혼상제대전, 명문당, 1981.